“대행 선사, 독창적 수행관 보인 선지식”

대행선연구원 3월 16일 제3회 계절발표회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선연구원은 3월 16일 제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행선사의 수행관을 발표한 황금연 경희대 교수와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해 분석한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수행관과 관법 체계를 학술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3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계절발표회에서는 황금연 경희대 교수가 대행 선사의 수행관을 “독창적이고 어떤 굴레나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황금연 교수는 ‘대행 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연구’에서 대행 선사의 생애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수행관·화두관 등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대행 선사가 불문(佛門)에 인연을 맺은 것은 한암(1867~1951) 선사의 영향이 컸다. 대행 선사는 한암 선사에게 “곶감의 꼭지가 떨어져야 공부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참구하는 발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선사는 사찰의 꽉 짜인 생활과 강론에 회의를 느꼈고 홀로 산야를 돌며 수행을 했다. 깨달은 후에도 대행 선사는 선지식들과의 법거량보다는 전국 산천초목을 다니며 자연을 향해 법거량을 했다. 실제, 선사 자신도 “나는 경전이나 좌선 등에서 도리를 배운 게 아니고 서리 맞은 고추 하나 따는 데서 인과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황금연 교수는 “선사의 수행 전체를 통해보면 자연을 마주하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의심이 부단한 의정(疑情)의 힘을 얻고 그것이 의단화(疑團化)돼 참구해 나간 만큼 일정한 스승이 없다”면서 “일체 만상이 그의 스승이었으며, 심지어 그가 무학(無學)인 것도 스승이었다고 토로하는 것이 선사의 수행 특징”이라고 봤다.

또한 대행 선사가 보인 참선에 있어서 황금연 교수는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묵연한 수행”이라는 선사가 설한 참선의 정의에 주목했다.

선학 전문 연구자들 참여
대행 선사 수행관 등 조명
선사, 만물을 스승삼아 수행
主人空 본성 대한 믿음 강조
“모든 것이 화두… 굴레 無”
대행선 관법 체계 분석·분류도

이에 황금연 교수는 “대행 선사는 ‘자기 주인공 본성에 대한 믿음’, 즉 불성에 대한 믿음이 철저할 때 일상생활이 참선이 된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24시간 가운데 주인공을 잊을 때가 있어도 마음의 원동력을 체득해 지속적으로 수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의 화두관 역시 매우 독창적이다. 선사는 정형화된 화두공안을 새로운 화두로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에 황금연 교수는 “살아가는 자체가 화두고 참선”이라며 “사람에게 주인공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누구로부터 화두를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며, 그 화두를 통해 새로운 의문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행 선사의 일관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참선관과 수행관, 특히 화두관은 매우 독창적·독자적이며 기존의 어떤 굴레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선사의 가장 큰 특성은 경론의 언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경론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선 관법 체계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이상호 연구원은 논문에서 대행선 관법을 ‘3관법(觀法), 6관(觀), 11요(要), 7단(段), 3오(悟)’로 체계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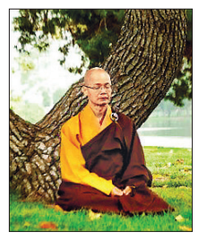
이상호 연구원은 “6관 수행법과 7단계를 거침과 동시에 세 번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대행선의 수증관”이라며 “이 같은 관법 체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각종 관법 수행과 함께 일상생활의 영위와 주인공 발현이라는 증명, 일체불이 및 나툼 등 세 번의 죽음과 깨달음은 분명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 논평자로는 동국대 명예교수 혜원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참여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넓게 펼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뤄지는 열띤 토론은 선사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스님 초청 불칠·선칠 집중수행

비로자나국제선원 3월 22~28일



미국 영화 스님 초청 불칠 선칠 7일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지우)은 3월 22일부터 28일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영화선사 특별초청 불칠 및 선칠 7일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위앙종 법맥 선화상인의 제자인 영화 스님<사진>은 1999년 만기악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고 대만에서 계율을 공부한 뒤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 2005년까지 은둔 수행을 했다.

영화 선사는 BLI(BodhiLight International)라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고 다양한 나이, 민족, 종교, 언어 배경의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편, ‘불칠’과 ‘선칠’은 사람이 변화하는 7일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수행법으로 불칠은 새벽 4시 능엄신주를 포함한 아침 예불로 시작해 아미타경, 아미타찬, 아미타불 염불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선칠은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앉기, 20분 걷기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다. (02)6012-1731

노덕현 기자

“기증등록자님, 처음 그 마음 지켜주세요”

생명나눔, 올해 첫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캠페인 전개



캠페인에 동참한 한양여대 학생들이 채혈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

“조혈모세포 기증은 헌혈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일종의 장기기증이기 때문이에요.”

3월 20일 서울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캠페인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2019년 첫 캠페인을 시작했다.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양여대 행원스퀘어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착한릴레이’는 대학생들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증희망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정환 생명나눔 차장은 “기증자 사망 후에 이식이 이뤄지는 장기기증과 달리, 기증자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유일하다”며 “기증방식도 예전보다 쉽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착한릴레이 캠페인을 알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등록서를 작성한 뒤 기증희망자가 채혈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채혈은 기증이 아닌 DNA타입 검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향후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는 일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박향규 생명나눔 실장은 “‘피를 만드는 어머니세포인 조혈모세포에 문제가 생긴 백혈병, 혈액암 환자들은 건강한 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 중 내가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2, 3만 명 중 1명 정도로 이식 가능한 일치자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혈모세포는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증등록자 수가 많아져야 생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착한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된 취지도 이 때문이다. 빠르면 6개월 안에 세포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기증 적합 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생명나눔의 설명이다.

최하림(도예과 3학년) 학생은 “등록을 하더라도 맞는 환자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참을 결심했다”며 “기증 이후 3주 내로 원상회복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증할 수 있도록 일치자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증의사를 낸 시점과 실제 기증이 시행되는 시점 차가 나다보니 사후관리가 핵심이다. 생명나눔은 이날 기증희망자들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마다 다이어리를 우편발송하고 다양한 SNS 이벤트를 하는 등 기증희망자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채혈을 끝낸 학생들은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을 했다는 표시로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였다.

최은비(니트패션디자인과 1학년) 학생은 “신분증에 붙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처음 낸 기증의사를 잊지 않고 생명을 구할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들었다”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 때문이라도 기증등록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착한릴레이 캠페인은 한양여대를 시작으로 대구지역 영남이공대(3월 25~26일), 영진전문대(3월 27일), 대구가톨릭대(3월 28일)로 이어진다. 또한 4월은 부산지역 신라대, 부경대, 동의대, 동아대, 동명대 등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다시 5월경 서울지역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불교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원 모집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이 잼버리 대회 참여를 위한 대원을 모집한다.

불교스카우트연맹은 2021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2023년 지구촌 170개국 청소년 5만명이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대원 조직화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대원을 모집한다.

대원이 되면 사찰연합캠프, 리더십 함양캠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참가, 신라화랑도캠프, 불교영어캠프, 미국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환경보전활동, 스키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포상 기회도 주어지며 활동경력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02)722-903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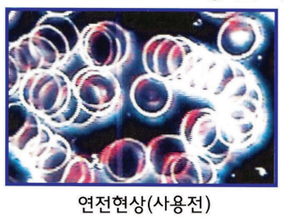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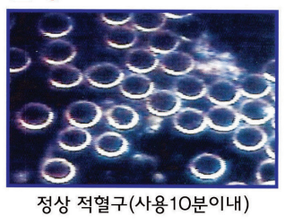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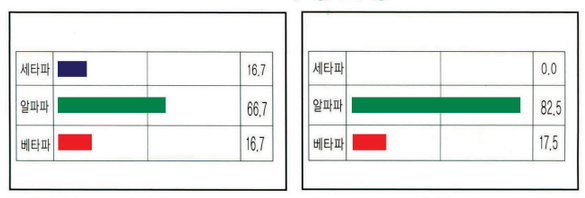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